

해남 안전한 먹거리 민관 손 잡았다

‘먹거리위원회’ 본격 활동...8개 분과 59명 참여
농수축산물 선순환 시스템·먹거리 복지 등 추진

해남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민관 협치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해남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출범식을 가진 위원회는 집행부와 3개 소위원회 8개 분과 총 5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군민이 중심이 돼 지역의 농수축산물 선순환 시스템 구축,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갈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참여 등 공공

먹거리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출범식에서는 “해남군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해남 군민 먹거리 기본권이 선포됐다.
해남군은 민선7기 군정 중점과제로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해남 2030 푸드플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먹거리 전략팀을 신설하고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48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명현관 군수(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 먹거리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해남군 제공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이를 운영할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남군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호 기자



전남을 대표하는 국악인 100여명이 19일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명인·명창·명무가 펼치는 ‘국악의 향연’

전남 출신 국악인 진도서 19일 합동공연
국가·도 지정 예능보유자 100여명 출연

전남을 대표하는 국악인들이 진도군에 모여 전라도의 흥과 멋으로 꾸미는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9 진도문화예술제 축제의 두 번째 초청 공연으로

“2019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이 19일 오후 2시부터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날 공연은 전남도·진도군 주최, (사)한국국악협회 전남도지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며,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 출신 국악인들을 초청해 열리는 국악 페스티벌이다.
진도 출신 판소리 예능 보유자 신영희를 비롯, 박방금, 송순섭, 이태백, 유영애, 박수경 무용단, 김지연 무용단, 김향순, 황승욱 등 국가·전남도지정 예능보유자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명인·명창·명무 100여명이 출연한다.
/진도=박병호 기자

공연 프로그램은 무용, 판소리, 아쟁산조, 남도민요, 가야금병창, 부포놀이 등으로 1부와 2부로 구분해 열린다.
진도군은 전남 지역 출신 명인·명창·명무들의 특별 공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예술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전남을 대표하는 명인·명창·명무의 특별무대는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를 알리고, 진도문화예술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무안 영드림 페스티벌 “청년들과 함께 즐겨요”

25일 남악 중앙공원서 개막...공연 등 다채

‘2019 무안 영드림(Young Dream) 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도 17개 군 중 청년(19-45세) 인구가 가장 많은 무안군에서 열리는 ‘무안 영드림 페스티벌’은 청년(Young)들에게 새로운 꿈(Dream)을 키워주고, 사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청년도시 무안’이란 비전을 새겨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25일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및 체험, 연계행사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청년도시 무안을 선포하는 개막퍼포먼스와 인기 가수 휘성, 몽니, 신현희, 신지 등이 출연하는 힐링 후 콘서트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가 펼쳐진다.
26일 둘째 날에는 유명작가인 언어천재 조승연 작가의 명사초청 강연과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안군 일자리박람회도 준비돼 있다.
또 전국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K-POP 커버댄스 대회, 유명가수 벤, 데이브레이크, 비보이 진조크루

가 출연하는 영드림 콘서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출연하는 명사초청 강연, (사)K-뷰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K-뷰티 경연대회와 퍼포먼스, 음악을 사랑하는 전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춘가요제가 펼쳐지며, 가요제 축하 공연으로 유명가수 거미와 닐로(Nillo)가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 체험존, 청년홍보부스, 딱지 배틀그라운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 체험존은 드론, 3D프린터,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평소 접해보기 어려운 다양한 4차산업 기술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연계행사로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27일 운영되는 청년홍보부스는 무안 지역과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창업가·브랜드, 대학동아리 등의 활동사항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브랜드 등을 볼 수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완도군민회관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조성

문화예술의 전당엔 ‘생활문화센터’ 건립

완도군은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1,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유류 공간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선정돼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완도군민회관에 총 사업비 22억 7,200만원(국비 10억1,2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완도=최규옥 기자

아울러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유류공간에 총 사업비 12억5,000만원(국비 5억 원)을 투입,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2개소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1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문화시설 확충 관련 사업 2개소 동시 선정은 군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줄곧 바라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클릭! 고향 속으



완도 건강증진활동 경연대회 최우수상

완도군은 17일 “전남도가 주관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흥에서 열린 경연대회에 완도군 대표로 출전한 ‘해양치유’ 팀은 25명으로 구성됐고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노르딕워킹에서 사용되는 노르딕 스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체조를 선보였다.
해양치유 팀은 대회 출전을 위해 1개

월 간 연습을 했으며 건강 기여도와 숙련도, 호응도 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적용해 군민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무안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무안군은 최근 송달문화예술회관에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김산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9명에 대해 군수 표창과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표창, 무안군지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남현 지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 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노인의 역할도 변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노인인구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 ‘퀴즈로 배우는 청렴골든벨’ 대회

영암군은 최근 군 직원을 대상으로 ‘퀴즈로 배우는 청렴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퀴즈대회는 부서별 대표로 선발된 총 100여명의 직원이 팀별, 개인별로 나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OX퀴즈,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팀별 대항전에서는 덕진면사무소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개인별 대항전에서는 투자경제과

이우석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손진식 부군수는 “퀴즈대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영암’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청렴도 상수를 위해 청렴 자가진단시스템 운영과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표어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